장희수

가전제품과 가구를 주로 작업하고 있는 장희수입니다. 오늘의 일상생활 속 불편하고, 디자인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모든 대상을 관찰하며 내일의 더 나은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. 새로운 아이디어들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디자이너가 되고자 합니다.  
  
I'm Jang Hee-soo, who works mainly on home appliances and furniture. I am dreaming of a better life tomorrow by observing all the objects that are uncomfortable and need design improvement in today's daily life. I want to be a designer who makes a better world with new ideas.

heesoo1818@naver.com